

남원시, 토종미꾸리 치어 대량생산 기반 구축

농기센터, 한 겨울에도 조기 채란 기술 확보 3월 농가 치어 분양...인공수정 등 기술 교육

한겨울에도 토종 미꾸리 치어를 부화할 수 있게 돼 미꾸리 대량생산 기반구축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 농업기술센터가 미꾸리 조기채란에 성공해 3월부터 치어를 양식농가에 분양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은 자연적인 산란시기보다 3개월 앞선 1월에 인공부화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최적의 양식 환경인 4월-5월에 맞춰 치어를 입식할 수 있어 노지 양식장에서의 양식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 미꾸리 잉어목 기름중개과의 민물고기이다.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도 장으로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물에서도 잘 견디며, 온도가 낮아지거나 가뭄이 들면 진흙 속으로 들어간다. 미꾸리지와 함께 추어탕의 재료로 이용된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양식장에서 인공부화한 토종 미꾸리 치어를 살펴보고 있다. <남원시 제공>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무한수 미꾸리 생산 기술과 연계해 남원산 미꾸리를 연중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남원산 토종 미꾸리 생산량 증대를 위해 토종 미꾸리 양식 기술 교육을 오는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바이오플라크기법(미생물을 활용해 수산물을 양식하는 기술)을 도입한 무한수 미꾸리양식기술과 어미 선별, 인공수정, 치어육성 기술 등 미꾸리 부화부터 성어 생산까지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신안군 갯벌을 찾은 도요물떼새.

신안군, '국제철새심포지엄' 개최 추진 등

철새 매개로 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적극 검토

신안군이 '국제철새심포지엄'을 다시 열기로 하는 등 철새를 매개로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끈다.

신안군이 철새를 매개로 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검토하는 곳은 평안북도 신도군과 평안남도 문덕군이다.

신도군과 문덕군은 각각 압록강과 청천강 하구 갯벌이 있는 곳이다. 이 갯벌들은 신안군 갯벌을 찾는 도요물떼새의 이동경로와 일치한다.

군은 신도군과 문덕군 철새 생태정보를 교환하고 서식지 보전을 위한 공동 활동 및 인적 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개최했던 국제철새심포지엄을 가을부터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신안군이 개최했던 국제심포지엄 횟수는 총 8회로, '한국에서 열린 최장기 철새 국제심포지엄'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여러 국가를 이동하는 철새의 특성상 국제적인 협력은 종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군은다시 개최하는 국제철새심포지엄이 철새들의 종 보전을 위한 생태정보 교류는 물론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철새에게 경계가 없듯이 귀중한 생명 종인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역시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신안군은 철새와 더불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고, 미래의 생태환경을 대비하는 국제교류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다시 개최하는 국제철새심포지엄이 철새들의 종 보전을 위한 생태정보 교류는 물론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농식품 기업 '하림지주' 익산 신사옥 입주

"대기업 지방 본사시대 개막"...농촌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농식품 기업 하림그룹의 지주회사인 하림지주가 익산 신사옥에 입주를 마쳤다.

하림지주는 "실질적인 대기업 지방 본사시대를 열었다"며 "농촌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업 생산 기반과 농업 연구 개발 인프라 등이 합쳐진 지역특화 개발전략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림지주 신사옥은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1만6031㎡ 규모다. 하림의 사육 부문, 하림산업, HS푸드 등이 입주했다.

하림그룹은 전북 지역에 하림과 하림식품 등 17개 계열사 본사를 두고 있다. 55개

사업장에서 2700여개의 직접 일자리와 협력사·계약 사육 농가 등 1200여개의 간접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하림지주는 "전북 익산 합영읍 익산 제4산업단지에서 조성 중인 공유주방 개념의 종합식품단지 '하림푸드 콤플렉스'는 4000억원을 투입해 올해 연말 완공과 동시에 가동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만709㎡ 규모의 부지에 식품 가공공장 3개와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고, 700여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 등의 대규모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익산시 마동 신사옥으로 입주한 (주)하림지주 본사.

하림그룹은 이 밖에도 2000억원을 들여 국내 최대 최첨단 도계·가공시설 증축 공사를 마무리했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5만3623㎡ 규모의 부지에 식품 가공 플랜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순창군,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사업자 확정

순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사업자로 확정돼 2023년까지 300억원을 지원받는다

군은 장류를 기반으로 발효산업과 함께 유용미생물은행사업을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순창읍 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 발효테마파크, 발효연구소, 발효 및 미생물 산업화시설을 구축했다.

군은 2022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8000㎡) 규모로 유용미생물은행 건물과 시설을 구축한다.

이어 유용미생물은행을 시범 운영한 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유용미생물은행은 7397억원의 생산을 유발해 2826억원의 소득창출, 2531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를 줄 것으로 군은 기대한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고창군, 쌀 고급화 등 식량산업종합계획 마련

고창군은 식량산업의 고급화 전략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서'를 열고 오는 2023년까지의 식량산업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군은 신략산업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고급화와 타 작물 전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의 장점을 가미한 명품 쌀 사업을 추진한다.

또 비건조저장시설(DSC), 미국종합처리장(RPC)을 중심으로 쌀 생산 농가를 조직화해 안정적인 유통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식량작물공동(뜰넉)경영체 육성,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등을 병행해 식량작물 전환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번에 확정된 종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함평군, 농·어가 수당 분기 30만원씩 지급

관련 조례안 논의 통과

함평군이 농·어업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에 수당을 지급한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농·어업 보전과 주민 소득안정을 주요 골자로 한 '함평군 농·어가 수당 지원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함평지역에서 농업과 어업, 축산업에 종사한 지 1년이 넘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분기별 30만원씩 연 12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조례 시행에 앞서 함평군은 지난해 10월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농·어가 수당이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돼 기존 지원정책과 중복되는지 여부,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함평군은 지원 대상 가정을 8000여 세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업 소득에 따른 농민 월급제와 정책자금 지원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군 관계자는 "군민의 70% 이상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가 수당은 소득안정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수당이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여수에서 최고 요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분할매매가능
- 대출-20억5천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주인직매. 010-3627-8282

